

INTERVIEW

연출가 김재업

사라져가는 책이 아닌 책과 함께 숨쉬는 삶 되고파"

연출가 김재업 씨는 그 세대가 지키지 못했던 공간 '오늘의 책'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학생들의 민주화열기가 조금 사그라질 무렵, 그는 92학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바뀌고 자신들의 전투적 성향을 물려주지 않은 차가운 선배들과 이미 학생운동과는 담을 쌓은 듯 무심한 대학생활을 즐기는 후배들 사이에서 긴 세대의 설움을 겪었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면서 그는 그동안 주로 우화적인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리얼리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건 아니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싶었던 탓도 있다. 그리고 대학시절이 그 대상이 됐다.

"당시 읽던 책들이 리얼리즘 소설들이었는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책에 설명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방향성과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이 너무 달랐죠. 사회에서도 문민정부를 지지하는 80%이상의 국민들이 학생운동을 보며 '시절이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왜 데모할까'라는 말을 하던 시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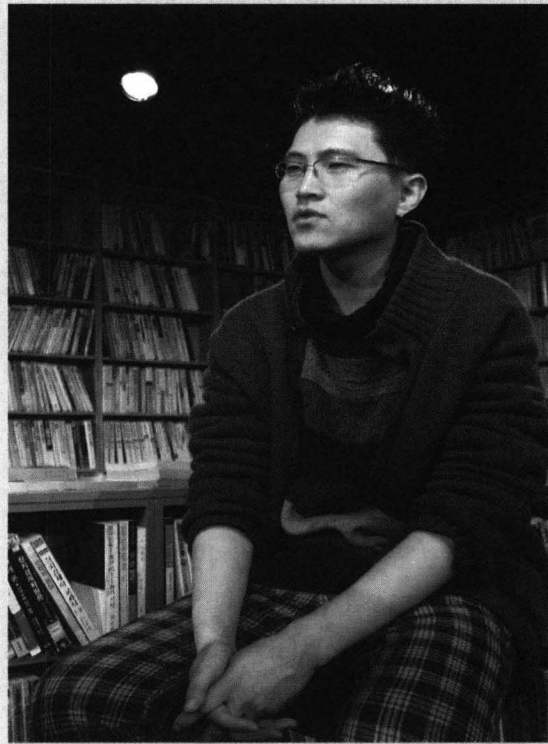
살다시피 하는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 '이음아트'라는 곳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을 만나러 갔다. 구상 중이던 공연 계획을 말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흔쾌한 동의,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을 토양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대본을 써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대에 채우려면 꽤 많은 책들이 필요했는데 문학하는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개인의 책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서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네 명의 주인공들은 추억과 낭만 보다는 덜 성숙했던 지난날, 또는 꾀꿉했던 젊은 열기 그리고 심각했던 당시의 문제들을 고집어낸다.

극에는 민중가요와 주사파, 아이에스(IS International Socialist, 국제사회주의자) 같은 운동권 용어 그리고 데모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인물들이 거론된다.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대목에서 사전지식이 부족한 관객에게 그가 직접 마련한 팸플릿의 용어해설은 꽤 유용하다.

"행여 극이 비장해 지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부분 코믹하게 쓴 것도 많죠. 후배들이 보게 될 때 저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낭만적인 추억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의명분을



가지면서 폭력도 행사해 보는 자체가 낭만이었죠."

대학에 들어가 책을 읽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살아남는 방향으로 책을 읽게 되고 예전의 치열한 고민은 사라져 안타깝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책 한 권에 감동받고, 의지를 불태우며 싸우다 죽었어요. 과거에 책은 내 삶과 바꿀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책만 찾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인문사회서들도 다이제스트가 많고 번역이 아니라 그것을 공부한 전문가가 다시 정리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우리 현실의 맥락을 못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다시 책이랑 친해지고 싶어. 오래된 책들이랑..."

"우리가 책을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작품 속 주인공들의 대사에서 그의 마음에 담긴 주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예전엔 되도록 많은 책을 읽고 모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책들을 찾아요. 읽었던 부분도 다시 읽고 아껴서 되새김질 하고 싶은 책이 좋아집니다."

삶을 바꾸는 책, 예술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고픈 그의 의지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 마음에도 새로운 의미로 새겨진다. ❧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